

주말, 여기 탐라미술인협회 4·3 예술작품 임대 전시

예술로 풀어낸 4월 이야기 더 가깝게

도청 1청사 본관·별관 1층 일상의 마주침 '기억의 감각'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실은 '역사의 진동' 공감의 자리

거기, 폭포 아래 흘날리는 동백꽃이 있다. 행방불명돼 생사를 모르던 남편의 유골이 70년 만에 돌아온 사연도 담겼다. 섬 곳곳엔 그날을 지켜본 흔적들이 남아 있다. 산 자의 마음을 달래고 죽은 자의 한을 풀어내는 곳엔 오늘도 이어진다. 9일 제주도청 1청사. 본관과 별관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기억의 감각'전은 그런 말을 건넨다.

이 전시는 탐라미술인협회(이하 탐미협)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26년 '제주예술작품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속하는 '예술작품 임대 전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열리고 있다. 도내 시각 예술 단체에서 도내 기관·기업 또는 다중 이용 공간에 미술품을 임대 전시하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탐미협은 그동안 제주4·3을 주제로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해 왔다. 이들의 작업은 과거를 재현하는 기록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의 삶과 연결되는 질문이자 평화와 공동체, 존엄의 가치를 다시금



① 제주도청 1청사 별관에 별도 구조물을 만들어 작품을 걸었다.
② 제주도청 1청사 본관 1층에서 진행 중인 '기억의 감각'.
③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역사의 진동'이란 이름으로 4·3 예술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다.

새기는 여정이었다.

이에 일상 속 우연한 마주침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야기 할 살아 있는 이야기"로 4·3을 전하기 위해 도청 1청사를 전시 장소 중 하나로 택했다. 도청 공무원만이 아니라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과 시각 예술 언어로 풀어낸 4·3의 의미를 나누려 한다. 지난 7일 시작된 전시로 오는 30일까지(평일 오전 9~오후 6시) 볼 수 있다.

또 다른 4·3 예술작품 임대 전시장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선 제주국제평화센터. 이곳 기획전시실에서 '역사의 진동'이란 제목을 달고 역사적 기억을 동시대의

언어로 확장한 작품을 걸었다. 전시는 이달 3일부터 8월 3일까지(둘째·넷째 주 월요일은 휴관).

'기억의 감각'과 '역사의 진동' 전시에 참여한 탐미협 작가는 30여명. 30대 청년 작가가 포함되는 등 새로운 세대가 펼치는 4·3 예술도 만나게 된다.

박진희 탐미협 대표는 "도청 청사가 도민 대상 공간이라면 제주국제평화센터는 관광객과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라며 "한 달 동안 전시가 이어지는 만큼 예술로 4·3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판매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전시 소식

▷제18회 고은 한국화전 '꽃으로 피어나는 시간'=제주 고은 작가가 서울 종로구 아트로직스페이스에서 이달 7~12일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전통 민화의 12지신을 신화적 존재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화해 표현한 작품 20점이 나왔다. 자신의 시간을 살아내며 스스로를 꽃피워 가는 인간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형 언어로 풀어냈다. 인물 곁에 피어난 꽃들은 저마다의 개성과 서사를 담

고 있다. 나비는 변화와 성장, 희망을 상징한다.

▷제2회 강문정 수채화전 '더 메모리'=유년기에 바라봤던 푸른 바다와 파도, 검은 바위와 모래사장, 눈부신 햇살을 주제로 작업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마음속에 간직한 어린 시절의 바다 풍경을 떠올리면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웃음소리를 듣는 듯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달 8~15일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기획전시실.

▷문인화 동아리 목랑회 제14회 회원전=사군자, 묵련, 포도, 연꽃 등 자연을 소재로 회원 26명이 약 50점을 출품한다. 문병수 회장은 "이번 전시가 7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은은한 묵향처럼, 모든 분께 깊은 울림과 편안한 심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목랑회는 전직 공무원, 교사, 주부, 직장인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

문화가 쏙지

▷김유정의 '돌과 삶-오늘, 어제와 내일의 시간'=돌 문화 이야기를 주제로 내건 다섯 강자가 이달 11일부터 9월 12일까지(오후 3~6시) 펼쳐진다. 제주 무덤의 세계관(7월 11일), 산담의 모뉴멘탈리티(7월 25일), 동자석과 문석인의 도상 해석(8월 8일), 돌담의 역사적인 문법(8월 29일), 돌문화의 품토 미학과 형식(9월 12일)을 차례로 다룬다. 장소는 제주시 중앙로 하나는 행 문화공간 마당.

▷앞 두드림, 금강산 보자기 만들기=문화 예술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 '김만덕기념관의 아틀리에' 7월 행사로 기획했다. 앞 두드림 기법을 활용해 김만덕이 여행한 금강산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30분에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운영된다. 초·중·고·대·대학생 대상 회차별 선착순 15명 모집. 기념관 누리집 참고. ▷본태박물관 본태아카데미=제

11기 가을학기 과정이 오는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물관에서 열린다. 중등 전문 기자인 알파고 시나씨, 강주현 제주대 관광학과 교수, 성유미 정신과 전문의, 김석주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관장, 민현준 서울대 미학과 교수, 이명현 천문학자의 강연이 이어진다. 아카데미 가입 회원에게는 박물관 무료 관람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문의 064)792-8108.

제주↔일본전세기 3일

특별한 가을 여행

오кина와

10.16(금)-18(일)

구마모토

10.31(토)-11.2(월)

사전예약 할인 (현달간~7.15일까지)

1,099,000→999,000

※ 양국정부 인허가조건 ※

제주↔항주(룽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황산 1,199,000원

오진 1,199,000원

상해 1,099,000원

광복절연휴 항주, 상해 4일

8.14(금)-17(월,대체휴일) 1,099,000원

오사카 4일

1,520,000~

후쿠오카 4일

1,550,000~

타이베이 4일

1,190,000~

카오슝 4일

1,210,000~

싱가폴 5일

1,440,000~